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호세아 6:1-7, 베드로후서 3:14-18

정운돈 목사님

오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한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와 함께, 구약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초창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다. 학자들은 아모스 선지자를 문서로 역한 첫 번째 선지자로 보고 있다. 아모스와 호세아는 주전 오세기 700~800년 전쯤에 활동했다. 성경 중에서 선지서가 있는데, 분량으로 따져서 대선지서가 4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대선지서가 먼저 나오지만, 시기상으로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먼저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이며,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출신이었는데, 두 사람 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대속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 현장에 전해야 할 사실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에게는 전성모사로 자란 삼촌이 있는데, 이분이 고아원에서 자라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숙모님이 출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출버림이 나서 자꾸 카바레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가면 데리고 오고,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그랬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했다.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왜 그런 분을 계속 데리고 사세요?” “내가 고아로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고아로 자라란 안 되지 않겠나?” 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소중한 것, 가치있는 것을 알면 율법적인 것을 버리고 수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ovel같이 타락한 존재다. 고렐은 창녀라고 음란한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만나라.” 모세에게는 애굽 가서 왕을 만나라는 사명을 주시더니, 호세아에게는 이런 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 중심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자꾸 가지고 있다.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평가한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산다고 볼 수 있는가. 더 죄를 짓지 않나. 더 남 모르게 나쁜 것을 많이 하지 않나. 더 복음화되어야 한다. 내가 의롭고, 내가 옳다 하는 생각 자체가 비복음이다. 그것을 계속 깨부수어야 한다. 호세아는 탈없이, 문제없이, 윤리 도덕 율법적으로 잘 자랐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특징과 참으로 놀라운 내용이다. 고렐이라는 여자는 유명했다. 아버지의 이름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낳은 자녀의 이름까지 짓게 하셨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북왕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과 부인이 아합과 이세벨인데, 이 사람이 나뭇이라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는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었다.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죽게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쉽게 말해 멸망의 땅, 저자들의 땅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아이의 이름을 ‘저주’라고 지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둘째의 이름은 ‘로무하바’다. ‘로’는 짐두사로서 ‘not’이라는 의미다. 은혜와 공휼을 받지 못하는 자, 없는 자라는 뜻이다.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마귀 자녀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한 후에는 반드시 ‘그러나 너’라는 말씀을 주신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그래서 호2:1에는, “그러나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마하라 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자기 자녀에게는 ‘내 백성이 아니다’ ‘공휼이 없는 자다’ 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반대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못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힘써 여호와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 의미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의미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가?

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버린 창세기 3장의 문제다. 바알은 풍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는데, 이것들은 가나안 땅의 신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경계하셨고 경고하셨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가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여호와 신앙과 이것을 혼합해 버리게 되었다. 당시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정적인 관계를 했을 때 비가 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신전에 소속된 창기와 음란 행위를 하면 비가 내린다고 가르친 것이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짓말을 믿어버리는 풍토가 가나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농사의 풍작을 주는 신은 바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혼동하기 시작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도 바귀 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나안 아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 버리자, 금귀걸이와 금목걸이를 모아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눈으로 보이도록 금으로 만들었다. 오늘 우리들이 빠져 있는 것이 이것이다. 먹고 사는 것, 풍요를 주는 것, 다산을 주는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주는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버렸다. 여러분, 대가 없이 공기업도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응답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주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안덕속회를 축복하셨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지만,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자자손손 주실 것이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미국이 요즘 국제정세에 신경을 안 쓴다. 자기들에게 자원이 많이 있지 때문이다. 미국에서 원래 아라비아반도 앞에 항공모함 두 척을 항상 띄워놓고 석유 수입로를 지켰는데, 이제는 안 한다. 양반층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이 발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셰일혁명’이라 부르는) 이 기술 때문에, 엄청난 매장량의 석유가 미국 안에서 채굴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애를 쓰던 것까지도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주변에 자기들을 위협할 강한 나라도 없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할 게 없으니, 더 이상 다른 나라는 신경쓰지 말자는 이상한 사람이 선거에 나오는 경도가 되었다. 선조들이 기도한 덕분에 미국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어떤가? 악조건이 너무 많다. 주변이 다 강한 나라들이고, 기름도 없고 땅도 없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반대로 아무리 풍요롭고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땅은 황폐한 땅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라.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라. 이스라엘은 꼭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주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강대국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호와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인데, 왜 그 받았던 축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느냐” 여러분이 그 신앙을 회복할 때 모든 축복도, 응답도 회복될 것이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고 생각했다. 먹을 것이 항상 문제다.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님만 바라보고 진정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② 둘째로,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 있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음란하고 쾌락하는 것을 좋아했다. 바알, 아세라 섬기는 것도 다 핑계였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었다. 우상숭배는 곧 탐욕이다. 자기들이 하는 쾌락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알콜 중독, 도박 중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자기 쾌락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그것을 정당화한다. 자기가 타락해놓고, 연애하느라고 예배 안 드리면서 정당화하고, 실연하면 상처 입었다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정당화한다. 육신적인 것, 쾌락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치고 예배를 실패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 6장, 네피림이다. 그 절정이 동성애 아닌가. 쾌락을 위해서 혼합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해 버리는 것이다.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긴다. 그 신들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을 만들었는데가. 생명을 주었는데가. 하나님과 잠신을 똑같이 생각하고 섬기고 혼합시켜 버리니까 하나님이 정계하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다 주실 것인데, 좋은 신앙도, 직장도,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인데, 우선순위를 놓쳐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학교 다닐 때 선배들은 나를 보고, “너는 그렇게 살면 세상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살 마시고 다니는 것이 과연 재미있어? 밥새 술먹고 이상한 것 하는 것이 즐거워?” 행복하지 않다.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 보았는데, 결국은 이런 것을 하다가 후회하게 된다. 나는 마약, 도박, 알콜 중독자 상담을 하고 있지 않나.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럴 때 행복하셨느냐’ 하고 물어보면, 다 자살하고 싶었다고 한다. 여러분, 주일날 놀러가지도 않고, 관망도 못 가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딱딱한 이야기 들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가? 여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행복한 곳인지 모른다. 다른 곳은 지저분하다. 더럽다.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 양심에 자꾸 찢리는데, 그게 계속 굳어가다 보니까 짐승 이하의 인간이 된다. 그게 불행 아닌가. 여기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보같지만, 가장 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현상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이것보다 행복한 것을 알려주신다면 나도 목사 그만두고 그리로 가겠다. (웃음) 결국 거기 가 있던 사람들도 후회한다. 댄스도 술도 그 행복은 순간적이고, 결국 패배 걸려서 후회한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담배를 피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먹고 건강관리를 하더라.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건강관리를 하시기 바란다. 죽을 것도 모르고 불안 속에서,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지 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고렐같이 음란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가. 야넬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율법적으로 여러분이 헛갈리셔서 그런 것 같다. 헛갈릴 것이다. 호세아도 그랬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잘 할 수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휼이 없으면 안 된다. 율법은 한 가지만 아껴도 모든 것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은혜를 너무 받고 사랑하다 보면, 자유가 되어지고, 거듭나고, 우리는 결국 홀도 없고 티도 없이 변화되는 데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 은혜를 정말 알고 깨달으면 거듭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가? 노래방 가고, 놀러가고, 춤 추러 가지 않고 여기 있지 않나.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③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문제다. 11:7에, “그들은 반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고 했다. 여러분은 돈을 벌수록, 성공할수록 겸손하시기 바란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지식도 학벌도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그들을 사랑하니까. 11:8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갈을 주었을지라도” 아무하는 것이다. 힘 세 사람, 권력있는 사람에게서 아무해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인 임금이 지워진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고” 무슨 말인가? 지도자, 임금, 아무하고 버물을 주며 지켜 달라고 의지했던 자들이,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성공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과 권력에 아무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지라도’ 금신상 앞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란다.

(2)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징계하셨을까?

① 징계의 내용이 많이 있다. 호세아 1~1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내용과, 그들을 징계한 내용이 많이 나온다. 절반 이상이 범죄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징계를 안 하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분이시다. 어떤 징계를 하셨는가? 호2:11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쉽게 말해서, 자기가 자랑했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는 경제와 삶이 다 황폐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예도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다. 복음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 오셨다. 모든 좋은 것, 환경과 조건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들의 직장까지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 왜 그러시느냐고 질문하며 기도했더니, 다 버리고 오직 전도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전화했다고 한다. 그래서 말씀을 해 드렸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제 정경화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주변에 보면 더 큰 응답, 돈으로 살 수 없는 응답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후대가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인데, 그것을 믿고 오직 전도에만 집중하세요.”

②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1) 하나님께,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

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내가 나와 결혼하여 나의 남편이 되리라고 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 보기 싫은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화를 낼 일이 없다. 하나님이 역정을 내시는 것. 우리가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길 때 분노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2)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것도, 선생님이 학생을 꾸짖는 것도, 목사가님 여러분을 꾸짖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3) 그리고 징계를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징계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호:15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고난당할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했다. 혹시 어려움이 있는가? 형제 여호와의 뜻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전환점으로 삼으시기 바란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간절히 여호와의 뜻을 찾는 것은 큰 축복이다. 고난이 왔는데도 안 찾는 사람이 많다. 참 대단하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데도, 인내력이 강하다. 잘 참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안 간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도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란다. 마음이 굳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안 오는 사람이 많다. 대다수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더 저주한다고 했다. 고난을 당한다고 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나를 갱신하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란다. 이스라엘은 암소처럼 강박해져서 고집이 세다고 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고집을 부린다. 쓸데없이 고집 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 버려 버려라. 일심, 전심, 지속은 그런 데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고집을 부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혼란 안 받고 예배 참석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3오늘 안 하는 그런 것에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4) 징계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보면 더 이상 징계도 못 한다. 때리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때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 한다.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다. 어떤 자녀는 너무 심히니까 말도 못 한다. 상처받을까봐. 무관심이 아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잠하길 때도 있다. 징계조차 안 하길 때도 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약한데 징계받으면 더 무너져 버릴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악용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2.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와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

둘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와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어떤 잘못, 어떤 허물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팔을 펴고 기다리신다.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이해하고 알라.

②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우상과 다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③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응답받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이 가장 가지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다. 우리는 그를 만만하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과 율법함과 필요요움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④ 하나님 앞에는 너무 필요로운 것이 많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끝내면 안 된다. 역사를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창조과학을 공부하면, 얼마나 풍성하고 윤택한 것이 그 안에 많은지 모른다. 성경 속 인물들이 다 그러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일곱 랍넛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과 혼란 과정이 필요했다. 그 과정과 시행착오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베드로와 바울이 얼마나 깊이 성경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수백 겹창의 석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

(2)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힘써야 하는가?

①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애쓰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번역되었고 정리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이다. 지금 힘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일 복음소식을 듣고 반복하고 암송해야 한다.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은 2, 3천 번을 반복하니까, 2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이 이해되는 것 같다고 하였다.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사람이 본 복음과, 그냥 듣고 끝난 복음은 다르다. 이 복음,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한다. 매일같이 베개를 놓고 연습하라. (웃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부끄러우면 겁 하나를 보고서라도 계속 연습하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영접하게 된다. 영접 메시지를 여러분이 전하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눈물 흘리는 것을 못 봤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얼마 전에도 자기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데, 마음에 쌓인 것이 확 내려가고, 드디어 처음으로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 워낙 더러운 것이 많이 쌓여 있었으니까 그렇다. 그런 분들은 한 번 영접할 때 효과가 바로 나온다.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현장에 너무 깔려 있다. 랍넛들이 현장에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안 되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다. 아베가 된지, 엄마가 된지, 가정이 된지도 모르고 살아 가는 랍넛트가 너무 많다. 복음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란다. 복음을 깨닫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일 적용하면서 답을 얻어야 한다. 이 반복이 바로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리는 방법이다.

② 3오늘을 체질로 만든데 힘써야 한다. 당연한 것이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당연한 것이다. 내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참된 행복이 있으면 증인이 된다.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하는 사람을 보면, 땅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다. '나는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벌써 땅 많은데' 그런 것으로 살 수 없는 참된 행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정상적으로 매 주 주일성수를 하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이혼율이 2300:1이라고 나왔다. 통계적인 사실이다. 가정과 후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방법이 학교인가, 대학인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킬 때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안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날

이 온다. 늦기 전에, 아무 문제 없을 때 더 감사히 생각해라 한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해서 는 안 된다. 집중해야 한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메시지가 다 적었다. 말도 다 적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때 모든 것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돈으로, 세상 것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얻고 지킬 수 있게 된다.

③ 그러다가 우리는 8미션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숫자가 많다. 세 가지, 여덟 가지, 스물한 가지, 숫자가 많아서 죄송한데, 힘쓰시기 바란다. (웃음) 위구가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웃음) 8미션, 그게 응답이다. 나는 볼 때마다, '아, 정말 믿는 이야기다' 싶다. 어려운 게 아니다. 말씀,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면 말씀을 함께 나눌 포럼 팀, 실현 팀이 생기고, 새로운 기도제목,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제목이 생긴다. 네 번째로는, 내 개인 전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섯 번째로 절대적인 문이 열린다.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운동을 할 절대 지교회와 절대 제자가 생긴다. 이게 8미션이다. 이것은 정리했을 뿐이지, 사실은 복음 깨달았다면 당연히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랍넛들이 이 응답 속에 있을 줄 믿는다.

④ 다니엘과 요한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천 년의 응답을 받을 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 다른 것이 필요없다는 것을 체험해야 한다.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면 불안할 것이 없다. 사람이 미래를 몰라서 불안한 것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 년의 응답과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에 불안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천 대까지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요셉이고 다니엘이었다. 이변에 전교인수련회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다. 1박 2일,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고민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에서 질문했는데, 답을 주셨다. “금식시켜라! 1박 2일, 짧은 시간에 은혜받는 방법은 금식이다!” (웃음) 다 하지 말고, 이게 레마로 붙잡아지는 분들은 금식하시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웃음) “철야해라! 밤 열두시부터 내 시까지 철야로 기도해라. 철야 팀을 만들어라.” (웃음) 다 철야하라는 말이 아니다. 레마로 잡히는 분들은 철야를 하라. 그래서 천 년의 응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라. 그래서 프로그램도 다 없었다. 운동회 같은 것도 없다. 밥먹고 기도하고, 졸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1박 2일, 짧다. 그래서 여름 사역, 내년까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에 집중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그때 기도제목을 다 적었는데 평생의 응답, 천 대까지 받는 기도 응답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평생의 기도를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평생의 기도응답을 발견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랍넛부터 모든 중직자, 교역자들이 평생 기도제목을 찾는 전교인 수련회가 될 줄 믿는다.

⑤ 전도자의 삶 21가지 모두가 누러지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갈보리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람산, 마가다라방,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명, 소명, 사명을 찾을 수 있었고, 모든 현장 속에서 당연히 성, 필선성, 절대성의 응답을 주셨다. 그것을 버려야 하지 않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했다. 영적인 것, 전문성, 모두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변함없이 했다. 24시간 기도하다가 25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 영원히 남는 일 속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정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 바뀌는 것이다. 그러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런 변화를 주실 것이다. 고렐도 이렇게 하면 변화되는 것이다. 전도자로 변화되는 것이다. 현장에 많이 있는 이런 고렐도 같은 분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십 몇 년 전에 일본에 갔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옆에 앉았던 사촌동생이 이야기했다.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이 술집 여자라는 것이다. 고렐도이다. 은혜를 받으면 다 바뀌고, 진짜 전도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팬잡다. 부족해도, 넘어서도, 쓰러져도 팬잡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흠과 티가 없이 되어지는 전도자여야 할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첫째, 호세아서는 완전 복음, 완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2) 둘째로,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의 완전 복음, 완전 사랑을 이해하도록 힘쓰라고 말씀한다. 이것을 깊이 알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체질이 된다. 그러니까 말은 복음, 복음 하면서 체질은 자꾸 율법으로 가니까, 성화가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율법으로 평가하고 정죄한다. 제대로 된 복음과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다. 완전 복음, 완전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체험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3)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란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①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고 수없이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한다.

② 이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에게 대한 믿음은 다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사람은 부족한 것이 많다. 지금을 보면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르다. 지금은 허상이다. 지금은 부족하고, 믿음도 없고, 잘못하고, 뻔뻔뻔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자고, 가정에 어려움을 일으키고, 성격도 이상하고, 그러나 그런 지금을 바라보면 안 된다.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 치유될 줄 믿습시다. 지금은 그럴지라도 변화될 줄 믿습시다. 전도자가 될 줄 믿습시다. 거듭나게 될 믿습시다. 새물계 될 줄 믿습시다.” 이것이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호세아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고렐도보다,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더 음탕하고, 더 추악하고, 더 죄 많은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서, 갈보리산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안에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소중한 사명까지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 더 힘써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